한-몽 인적 교류 현황 및 협력 확대방안

이평래(한국외국어대학교)

1. 근년 양국의 상대국 방문 통계
2. 한국 체류 몽골인 수
3. 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
4. 결론
5. 도움 주신 분들

1. 근년 양국의 상대국 방문 통계

①몽골을 찾은 한국인 수(2010-2019년 3분기까지)

(단위: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Ⅲ
42,231	43,994	44,360	45,178	45,476	47,213	57,587	74,921	84,184	89,639

출처: 몽골통계청 국가 별 몽골 입국자 수
http://1212.mn/tables.aspx?tbl_id=DT_NSO_1800_003V2&HH3_select_all=0&HH3SingleSelect=_410&YearQ_select_all=0&YearQSingleSelect=_201901_201902_201903&YearY_select_all=1&YearYSingleSelect=&viewtype=table

②한국을 찾은 몽골인 수(2010-2019 10월까지)

(단위: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0
41,958	48,004	61,116	63,740	60,821	77,918	79,165	103,916	113,864	93,038

출처: 한국관광공사 2019년 10월 한국관광통계 공표
https://kto.visitkorea.or.kr/kor/notice/data/statis/profit/board/view.kto?id=440414&isNotice=false&instanceId=294&rnum=3)

2. 한국 체류 몽골인 수

①체류 몽골인 현황

2019년 6월 30일 기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30,674	29,920	28,634	26,461	24,175	24,561	30,527	35,206	45,744	46,286	47,483
남자	17,250	16,758	15,703	14,131	13,021	12,865	15,686	17,256	22,078	22,380	
여	13,424	13,162	12,931	12,330	11,154	11,696	14,841	17,950	23,666	23,906	

자											

②(C-3) 단기 체류 몽골인 현황

2019년 6월 30일 기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5,951	5,109	4,863	5,247	4,571	5,826	10,488	12,929	20,969	20,220	22,988
남자	2,613	2,260	2,226	2,338	2,066	2,636	5,194	5,970	9,622	9,507	
여자	3,338	2,849	2,637	2,909	2,505	3,190	5,294	6,959	11,347	10,713	

③최근 입국 몽골인 현황(2018-2019)

2019년 6월 30일 기준

	2019				전월	2018	전년
	3월	4월	5월	6월	대비	6월	대비
입국자	9,091	7,923	8,333	9,614	15,4%	9,409	2,2%

④(D) 한국 체류 몽골인 현황(분야별)

2019년 6월 30일 기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유학 (D-2)	총	2,241	2,720	3,013	3,016	2,717	2,518	2,537	2,763	3,512	4,411	5,109
	남자	758	871	971	979	911	859	862	951	1,081	1,371	
	여자	1,483	1,864	2,053	2,054	1,806	1,659	1,675	1,812	2,431	3,040	
기술연수(D-3)	총		64			36	33	31	30			
	남자		56			30	27	25	24			
	여자		9			6	6	6	6			
일반연수(D-4)	총	1450	1822	2,038	1,983	1,553	1,321	2,432	3,354	4,397	4,397	3,621
	남자	523	713	861	857	630	553	945	1,204	1,740	1,825	
	여자	927	1,134	1,244	1,196	923	768	1,487	2,150	2,657	2,572	
종교 (D-6)	총	22	16	20	19	15	20	20	30	30	31	
	남자	9	11	9	9	8	11	12	23	21	22	
	여자	13	6	11	10	7	9	8	7	9	9	
기업투자(D-8)	총		301	265	183	78	65	59	56	58	56	
	남자		125	115	81	35	30	25	27	31	31	
	여자		176	141	102	43	35	34	29	27	25	
무역경영 (D-9)	총				31	86	75	70	76	75	88	
	남자				7	34	26	24	28	28	29	
	여자				14	52	49	46	47	46	59	
구직 (D-10	총		2,238	59	180	292	442	518	657	612	696	
	남		57	11	37	51	91	125	182	225	184	

)	자											
	여자		2,181	48	143	241	351	393	475	387	512	

⑤(E) 한국 체류 몽골인 현황(분야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교수 (E-1)	총	6	9	11	9	9	12	12	7	8	6	
	남자	3	3	4	3	3	4	7	3	5	4	
	여자	3	6	9	6	6	8	5	4	3	2	
연구 (E-3)	총	12	12	19	25	21	29	27	31	30	31	
	남자	7	6	9	11	11	20	16	23	17	14	
	여자	5	6	10	14	10	9	11	8	13	17	
예술흥행(E-6)	총	4	104	126	149	138	142	125	112	143	126	
	남자	1	77	91	99	97	99	91	90	103	97	
	여자	3	27	35	50	41	43	34	22	40	29	
특정 활동 (E-7)	총	61	75	416	100	110	120	149	187	192	199	
	남자	30	33	44	46	42	43	50	64	86	106	
	여자	31	42	372	54	68	77	99	123	106	93	
비전문 취업 (E-8)	총	12,454	12,398	10,897	9.136	8,654	7,839	7,099	6,686	6,743	6,190	
	남자	10,136	10,205	8,964	7,657	7,312	6,617	5,983	5,635	5,758	5,330	
	여자	2,318	2,193	1,933	1,479	1,342	1,222	1,116	1,051	985	860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⑥연도별 불법 체류자 현황

(단위: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9
7,747	7,409	8,274	10,146	12,719	15,919	17,233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https://blog.naver.com/pyb3816/221683935156를 참고하여 작성

3. 협력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

①한국 거주 몽골인에 대한 지원과 활용

한국 체류 몽골인(노동자, 결혼 이주자, 학생, 사업가, 기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이들의 한국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한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몽골인은 47,483명(2019년 6월 30일)인데, 근년 몽골 경제 성장 둔화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투그릭의 가치하락과 비자 간소화 등 추가적인 이유로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절대적인 수는 많지 않지만 320만 명이라는 몽골 인구를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그런 만큼 한국 체류 몽골인 문제는 자주 몽골 뉴스의 초점이 된다. 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몽골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국 체류 몽골인 문제는 한-몽 협력과 한-몽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10년 이상 장기 체류 몽골인(이들 중 상당수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 또는 장기 거주에 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한국에는 약 17,233명(2019년 9월 현재) 정도의 불법 체류 몽골인이 있다. 그들 중 상당수는 10년 이상 한국에 살면서 한국사회의 발전에 일정 정도 기여한 사람들이고, 생활과 문화적 측면에서 거의 한국인이 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장기간 불법으로 살고 있는 이들을 특별사면하고 장기 거주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 장기간 살고 있는 몽골인은 두 나라를 이어주는 살아 있는 다리이자 무역, 투자, 산업 등 각 부문에서 한국의 경제 및 사회적 성과를 몽골에 전달함과 동시에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들은 활용도에 따라 한-몽 관계 증진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10년 이상 장기간 체류 몽골인 부부(합법/불법) 자녀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발표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하나는 부모의 한국 장기 체류(유학, 노동, 사업, 공공기관 근무, 기타) 중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교육 받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비자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이들을 위하여 몽골에 국제학교로서 한국어학교의 설립하는 것이다.** 현재 몽골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살다온 학생들이 많아 지면서 이들의 교육이 또 하나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고 한국 문화에 길들여진 이들이 몽골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한국어 학교의 설립니다. 설립 방식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지만 한국 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을 한국 문화 안에 있게 함으로써 먼 장래에 한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한국 장기 체류 몽골인 귀국자를 위한 "일자리알선센터"(가칭) 제안한다. 수교 이후 지난 30년 동안 상당히 많은 몽골인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생활하다

가 돌아갔다. 이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들 대부분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다. 또 다른 부류는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가 몽골에서의 인적 사회적 네트워크 단절로 이어져 직업을 얻는 데 공백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칭 일자리알선센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자 장기적으로 몽골에서의 한국의 이해관계를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뒤에서 언급할 가칭 "한국 센터"의 한 부분으로 설립이 가능할 것이다.

▶몽골어 주말 학교(Mongolia Weekend School)

현재 서울과 수원에 있는 몽골어 주말학교는 재한 몽골인 자녀들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몽골어 및 몽골 문화 학습기관이다. 본 기관의 학습에 대해서는 몽골인 부부나 다문화 부부 매우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인터뷰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강의실, 교사 임금 문제 등 당장의 현안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재한 몽골학교로 발전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몽골어 학교에 대한 지원은 한국문화의 보급과 친한 정서를 함양시키는 데 매우 유용한 또 다른 통로라고 할 수 있다. **발표자는 이에 대한 지원 문제를 작년에도 제기했는데 한국 사회의 지원은 여전히 미진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한다.**

▶몽골 젊은이들의 한국에서의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불법 체류자를 줄일 수 있고, 몽골 젊은이들을 한국 문화에 익숙하게 하고, 한국에 우호적 감정을 갖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한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한국 문화를 몽골에 전파하는 중개자로서 한-몽 관계 증진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전문지식과 학위를 가진 몽골 전문가를 한국의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양국 관계 발전 계획 수립과 현안 해결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한국에는 한국 및 기타 국가에서 학위를 받고 전문지식을 갖춘 몽골 연구자자가 적지 않은데, 이들은 소정의 절차를 가쳐 '몽골 문제' 전담 인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②관광 분야 협력

한-몽 양국 간 관광 부문 교류 확대 및 한국기업의 몽골 관광업 진출 등 관광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관광객 유치는 비즈니스라는 현실적 목적과 함께 몽골인들로 하여금 친한국 정서를 갖게 해줄 수 있는 유용한 소재이다. 또한 몽골 입장에서 한국 관광객 증가(현재 몽골의 한국 관광객 수는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임)는 몽골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안에서 몽골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유용한 소재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가능한 범위에서 한-몽 상호 방문의 해를 자주 지정해서 양국 간 관광 교류의 모멘텀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한다. 2020년은 때마침 한-몽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국가 간 행사를 적극 펼칠 필요가 있다.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항공편 및 좌석을 확대하는 것이다.**

먼저 비자는 한국 측에서는 일반비자 발급기간 단축이 관건인 데 현재 4주 이상 소요되는 부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다행인 것은 내년 1월부터는 몽골에 비자센터가 신설되어 1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한국 비자를 받기 위하여 수개 월 혹은 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잇다는 것을 감안하면 하루 빨리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일정소득 이상 되는 몽골인에 대해서는 비자 신속처리가 필요하고 부정 발급자나 브로커에 대한 양국, 특히 몽골 측의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몽골 입국비자도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인 들처럼 한국인들에 대해 비자면제 또는 도착비자로 전환하거나 적어도 성수기 때만이라도 면제 또는 도착비자로 전환되도록 몽골 측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현재 여러 가지 사정상 한-몽 양국의 동시 비자면제가 어렵다면 한국인의 비자를 면제하고, 몽골인에게 연차적으로 비자 요건을 완화하다 비자를 면제하는 차등적 조치를 시행해서라도 양국 국민의 교류를 활성화시는 데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아무튼 비자 문제는 몽골 측이 요구하는 최대의 현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다른 부문에서 몽골의 협조를 얻어내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다음 항공좌석은 금년 7월 아시아나항공사 취항으로 좌석공급이 증가했다. 그러나 성수기에는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고 비수기에는 40%이하로 탑승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을 개선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카자흐스탄의 경우 내년부터 오픈스카이(opensky)가 되어서 대한항공 등 타 항공사 진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몽골도 이러한 사례에 따라 성수기 때만이라도 오픈스카이로 항공 공급을 원할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문제도 항공협정 개정 시 몽골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득의 문제가 남아 있다.

한편 몽골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인바운드보다는 아웃바운드가 양국 간 인적교류, 즉 양국 간 관광활성화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이를 경제적 관점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하나로 매년 일정하게 정해진 외국으로 나가는 한국 관광객을 몽골 쪽으로 돌려 몽골 경제에 도움을 주고, 이를 활용하여 몽골 측에 한국의 기타 요구를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몽골국 관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한국인 관광객 비중을 크게 높이고, 이를 지렛대 삼아 다른 부문에서 몽골의 협조를 받아내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거듭된 이야기이지만 한국기업의 몽골 관광분야에 대한 투자도 전도가 유망한 사업의 하나이다. 몽골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세계적 문화유산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교통통신과 각종 관광 인프라 미비로 이들을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몽골정부가 외국 관광객 유치에 대단히 적극적인데다가 근년 울란바타르와 몽골 전역을 연결하는 간선 도로망이 확충되고, 곧 신공황이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광업의 전망이 어느 때보다 밝다. **또한 최근 한국관광공사의 지원으로 호텔 리어, 가이드 교육(향후 관광 자원 개발로 확대)이 이루어지고 있어 몽골 관광 환경은 더욱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몽골 관광 부문에서 한국인의 비중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몽골 관광 부문에 진출하여 한국인 뿐 아니라 다른 외국인을 위한 관광 사업을 펼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자 문제의 단계적 해결방안: 미국, 캐나다, EU, 일본인처럼 한국인에게 몽골 입국 비자를 없애고, 몽골인의 한국 입국 시 비자 발급 신속화, 복수 비자 요건 완화, 미국식의 10년 비자 등 단계적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성수기의 오픈 스카이 제도를 신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관광 전문가들에 따르면 몽골 관광자원은 충분하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겨울철 관광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자원 개발에서부터 관광사업을 수행할 한국 기업의 진출이 필요하다.

←몽골에서의 관광업 투자에서의 한국의 강점

③'몽골 한국 센터' 설립 제안

한국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한국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양국의 실질적 협력의 중심기관으로서 '몽골 한국 센터'(가칭)의 설립을 제안한다. 그리고 동 센터를 통하여 지난 30년 간 이어져 온 양국 협력을 질적으로 도약시켜 다음 30년 발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몽골-일본 인재개발센터"(http://www.japan-center.mn/?locale=ja)의 활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인재개발센터는 몽골의 시장경제 촉진에 공헌할 인재의 육성과 두 나라 상호이해 촉진을 목적으로 일본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설립 이후 10년 동안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의 지원으로 운영되었지만, 2012년 4월에 몽골국립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편입되어 현재는 국제교류기금(JF)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재개발센터 역시 초기에는 일본어와 일본문화 홍보에 집중되었지만,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현재 본 센

터 내 한 부서는 비즈니스 담당부서이며, 비즈니스 기초반과 관리자 교육 등 이론 교육, 생산관리, 마케팅 등 현장 교육, 비즈니스 파트너쉽 발전교육, 일본 연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전통적인 사업, 즉 일본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 사업도 함께 이루어진다.

인재개발센터는 울란바타르 중심에 위치하고, 개소이래 누적 집계 200만 명의 방문자가 말해주듯 몽골에서 지명도가 높은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일본정부의 지원(JICA, JF)의 지원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몽골인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요컨대 인재개발센터는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저개발 국가인 몽골에 필요한 비즈니스 인재 개발에 투자하여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재개발센터 순수하게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몽골사회로부터 인정받은 연구 및 실무 교육 센터다.

인재개발센터는 이른 시기에 설립된 남양주 문화원과 크게 대비되는 성공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참고하여 발표자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 센터'의 구조,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몽골(한국) 소장과 한국(몽골) 부소장 및 양국 연구자 및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근무할 여건을 마련하고, 양국 협력에 관한 사항을 두 나라 정부에 자문한다.

▶몽골 기업체들의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한국 표준 인증서를 부여하고, 경영과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 및 기타 지역으로의 수출을 지원한다.

▶향후 북한과 몽골의 경제 부문 협력에서 한국의 참여 방안을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을 수행하여 언젠가 있을 수 있는 남북 경제 협력에 대비한다.

▶한국의 현대 문화를 몽골에 홍보하고, 몽골의 현대 문화를 한국에 홍보하는 등 문화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참고로 몽골은 인구는 적지만 한류의 바람이 가장 샌 지역 중 하나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몽골학과 몽골의 한국학"이라는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는 등 한국과 몽골 관계의 신정보, 현대 사회, 경제, 기술, 대중의 우호 관계에 대한 상시적인 홍보를 수행한다.

④한몽경제동반자 협정 관련 사항

한-몽 정부기관에 의해 연구가 끝난 한몽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과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일본은 몽골과 EPA 체결과 관련하여 **캐시미어, 차차르간(속칭 비타민 나무), 우유와 유제품, 피혁, 벌꿀(나중에 추가) 등 5개 사업을** 주요 대일본 수출품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연구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양국 비즈니스맨이 참여하는 회의와 상품 전시회의 정기적 개최 지원
▶몽골 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지원
▶일본 시장으로의 수출과 제품 판매 전략 마련과 지원

⑤Human Network 구축

한-몽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주몽골 한국대사관, 전문가, 몽골관련 NGO 등이 참여하는 인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대상은 코이카 초청 몽골 공무원 연수생, 국비 장학생, 정부 기관 및 지자체 교류사업을 통한 장기 체류 경험의 몽골인, 비즈니스 맨, 교수 등 한국과 관련을 맺은 사람과 도움을 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 향후 한-몽 간 현안해결이나 발전 발향을 도출하는 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절차는 기왕에 조직된 네트워크가 있으면 지원을 하고 없으면 결성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행할 것을 권한다. 인적관리 시스템 구축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준비하게 되면 양국 관계 발전 뿐 아니라 한국 정부와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각 직역 별 정기적인 모임 개최
▶한국 유학생 및 한국 관련 전문가들의 몽골 사회 진출 지원
▶대사관 및 현지 한인행사에의 적극 참여 유도
▶기타 방법 모색

⑥몽골 학자의 제안

이번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표자가 보낸 E-Mail 질문(신속히 건립해야 할, 또는 양국 협력이 가능한 시설 및 공장)에 대해 한 몽골학자들의 답변의 일부를 정리하여 보고한다.

▶쓰레기 재활용 및 재생 시설 건립 협력
▶자동차 및 기타 전기 제품의 배터리 폐기 시설 건립 협력
*참고로 몽골에서는 현재 배터리를 무단 투기하기 때문에 토지의 오염 문제로 이를 처리할 시설을 신속하게 건립할 필요가 있다.
▶쓰레기 처리 관리 체계 정비 분야 협력
*쓰레기 분리, 수거, 수합, 재생을 위한 법률 환경, 국영 및 사기업M 국민의 의무를 자세하게 반영한 종합 관리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가죽 공장 설립 협력

*현재 몽골에는 약 6,600천 만 두에 가까운 가축이 있지만, 매년 생산되는 가죽을 온전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연간 육류 434, 000톤, 양모 33, 000톤, 캐시미어 10, 900톤, 가죽 1,500만 장이 생산된다.

*몽골의 원피는 현재의 품질은 너무 늙고 상처가 많다. 방목에 의해서 글긴 자국, 벌레가 알을 피부 속에 낳아서 생긴 구멍, 도축의 부주의에 의한 칼자국, 구멍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 가죽 자체는 품질이 높다.

▶약재 공장(?)

*수출에 용이하고, 항공 등 비용이 높은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에 적합함.

▶양모와 캐시미어 방모(紡毛) 공장의 부족으로 양모 및 캐시미어 산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수익성 비닐하우스 산업

⑦ODA 사업과 관련한 전문가 및 학자들(한인, 몽골인)의 제안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이루어진 한국정부에서 몽골지원사업들을 총정리하는 책자(중앙 정부 및 지자체 연도별 사업소개)를 발간하여 향후 사업에 대비한다.

▶지금까지 몽골에서 진행된 ODA 사업의 경우 한국내 입찰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지 타당성조사 시 현지 한국인 전문가의 참관 및 관여, 인수인계 시 현지 한국인 전문가와 한인동포들에 대한 사업 소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몽 당사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부실 사업으로 완공사례가 너무 수다했다. 하나하나 밝히기는 어렵지만 몽골 ODA 사업의 연도별 성과와 실패 사례에 대한 책이 발간되면 이를 근거로 반성과 비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향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ODA와 관련해서는 몽골 현지에서 대사관, 코이카, 한인회, 코이카 파견으로 몽골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문관, 현지 한인 동포 중에서 대사관과 한인회 및 몽골정부와 몽골사회에서 검증받은 전문가들, 한국의 몽골 연구자들에 의한 사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ODA 사업에서 현지의 한인 전문가 및 한국의 몽골 전문가들이 배제된 채 진행되었다고 하는 비판은 몽골의 경우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우선 아이템 선정에서

“몽골-일본 인재개발센터”와 같은 저비용(443만 달러)/고효율을 거둔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참고로 몽골은 한국의 ODA 지원국 중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지난 30년의 한-몽 협력을 회고하면서 한국인들이 주로 숙박업, 음식점, 술집 등 소비 부문에만 투자한다는 일부 불편한 진실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어떤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10가지 이유가 있고, 하려는 사람에게 1000가지 방법이 있다”는 몽골 속담처럼 양국 정부 및 비정부 기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몽골에서 국제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고, 향후 30년에는 일본을 앞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과 몽골 두 나라 사람들은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친밀한 감정을 갖고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에는 몽골 총인구의 1.6% 정도인 47,000여 명의 몽골인이 상주하고 있다. 그 어떤 나라도 갖지 못한 한국의 큰 자산이다. 이러한 자산을 토대로 하여 상호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면 지난 30년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몽골은 여전히 우리의 이익보다 우리의 지원이 더 멓아야 할 나라라는 것,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충분한 이익을 갖다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5. 도움 주신 분들

현직	이름	방법
UN ESCAP 대표(전 주한몽골대사)	B. Ganbold)	전화/메일
몽골 국립대 교수(교육학)	D. Sainbilegt	전화/메일
몽골 과학원 국제연구소 연구원(경제학)	I. Enkhbold	대면/전화/메일
단국대학교 몽골어과 교수(경제학)	김보라	전화/메일
몽골 녹색농업기술원 원장	이혜식	전화/메일
주 코트디부아르 참사(전 주몽골 한국대사관 참사)	신상균	전화/메일
한국관광공사 몽골 지사장	박정웅	대면/전화/메일

국제울란바타르 대학 교수(역사학)	여병무	전화/메일
신소재모피사 대표(몽골)	신수용	대면/전화/메일
푸른아시아 사무총장	오기출	전화/메일
결혼 이주자(몽골 출신 여성)	윤승주	전화
한국외대 터키-중앙아시아-몽골학과 박사과정(한국 귀화 몽골인)	U. Dolgormaa	대면